

양성 위출구 폐쇄에 대한 복강경 초고도선택 미주신경 절단술과 위공장 문합술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조규석, 김형철, 이문수, 임철완, 신응진, 주종우, 강길호, 김용진, 이효원, 송옥평

(서론) 소화성 궤양에 의한 합병증은 약물요법의 발달과 조기발견 등으로 많이 감소하였으나, 난치성과 출혈, 협착, 천공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을 요하고 있다. 소화성 궤양에 의한 위출구 폐쇄의 외과적 수술 원칙은 위산 분비를 줄이기 위한 미주 신경 절단과 위출구 폐쇄를 해결하기 위한 배출로 형성들이다. 또한 이러한 술기들은 복강경 수술 술기의 발전과 수술 장비의 개발로 수술 자체는 좀더 비침습적이면서도 간편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자들은 최근 소화성 궤양에 의한 위출구 폐쇄 환자 3명에 대해서 초고도 선택미주신경 절단과 위공장 문합술을 복강경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초기 경험을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모두 남자로서 나이는 평균 55.3세였다. 모두 십이지장 궤양에 의한 위출구 폐쇄로 진단되었으며, 진단일로부터 수술까지의 기간은 평균 18.3개월로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위출구 폐쇄 증상이 있었다. 수술 술기는 유문근 상부 6cm 부터 소만부를 따라 전후면의 모든 혈관과 신경을 절단하면서 식도를 향해 진행하다가 식도 하방을 가로질러 식도 좌측연까지 완전 노출시킴으로 해서 전후 미주신경에 대한 초고도선택 절단술을 시행하였다. 횡행 대장 뒤쪽으로 공장을 통과시킨 후 위대만부 후면, 유문근에 최대한 가까이 위공장 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시간은 초고도선택 미주신경 절단술을 시행하는 데 평균 33분, 위공장 문합술을 시행하는데 평균 40분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총 평균 시간은 95분 소요되었다. 수술 후 통기는 술후 2-3일에 이루어졌고, 수술 후 재원일 수는 6~8일이었으며, 모두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수술 후 2주일째 시행한 위장관 조영 검사에서 위 정체 소견 없이 소통이 원활하였으며, 평균 6개월의 추적 기간 동안 재발과 설사 및 덤핑 증후군과 같은 후유증 없이 지내고 있다.

(결론) 소화성 궤양에 의한 위출구 폐쇄에 대해 복강경 초고도 선택 미주신경 절단술과 위공장문합술은 술기면에서 매우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술식으로 여겨지며,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술로 생각된다. 소화성 궤양의 재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추적 기간이 짧고 그 수가 적어 보다 많은 연구와 임상적 경험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